

임상실습 1년차의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지원*, 제남주*, 화정석**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Abstract〉

The Effec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 Level of Patient Rights on Adaptation to the First-year Clinical Practice

*Jiwon Kim, *Je, Nam-Joo, **† Jeong-seok Hwa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mpac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atient rights awareness of first-year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and to prepare practical and systematic personality development program education alternatives to foster high-quality medical personnel.

Method: As for the research method, an online survey of 155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G-do (76 medical students and 79 nursing students) was conduct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by-ste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25.0.

Finding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each variabl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human rights sensitiv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gender, patient rights recognition on personality type, and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jor selection motivation. Second, the factors affecting the adaptation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to clinical practic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xtroverted personality and patient rights perception among personality types (regression model results $F=6.38$ ($p<.001$), 24.2% explanatory power).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ducation and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foster accurate awareness of human rights issues by developing flexible and flexible extracurricular activity program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to strengthen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ability to adapt to clinical practice and improve awareness of human rights issues.

Key words: Awareness of Patient Rights, Human Rights Sensitivity,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Nursing College Students, Medical School Student

I. 서 론

의료인은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1],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방안을 찾아 치료 성과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2-3]. 특히 임상현장에서의

* 투고일자 : 2023년 02월 19일, 수정일자 : 2023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05월 16일

** 연구비 수혜 여부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2 Chang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No. 창신-2022-005).

† 교신저자 : 화정석(Jeong-Seok Hwa),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16길 15 Tel: +82-55-750-8924, Fax: +82-55-250-3185, E-mail: seogee@gnu.ac.kr

의료인은 치료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인권 문제들에 직면하여,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4].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수술실 내 CCTV 촬영 의무화, 의사의 대리 수술, 정신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등은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환자 자성의 목소리로서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과 중요성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의료인들은 조직적인 노력과 실제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임상현장에서 대상자 불만족과 불합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갖게 되는 보편적 권리로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존엄한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를 말한다[5-8]. 그러나 의료영역에서의 인권은 장애인, 여성, 아동 등의 취약계층이나 특정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적 편견을 가진 질환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대상자들로 인권 보호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인권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3]. 이처럼 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환자 인권 및 권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환자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4]. 선행연구[5-6]에서도 의료인들의 인권에 대한 지식과 판단,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임상 1년차 학생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직무나 업무에 한정된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권 감수성과 환자권리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은 일반인에 비해 인권의식이 낮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 분야와 인권을 연계하는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 특히 간호 대학생의 인권의식 정도를 조사한 선행연구[10]를 살펴보면 간호 대학생은 자기중심적인 인권의식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나타나 환자인권을 보호하는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간호 대학생의 인권 함양 교육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의학과의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양 교과목과 필수 교과목에서의 전체 이수학점이 다른 학과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임상 실습현장에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임상실습 교과목과 선행되어야 할 필수 교과목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이에 재학생들은 임상실습 전 기본 간호술이나 의학술의 전문 기술을 연습하고 사전 이론지식을 습득한 뒤 연계된 전공 교과목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환자 인권과 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임상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은 실습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매우 높은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11-12]. 즉 대부분의 임상실습 1년차 학생들은 매우 낮은 자존감과 불충분한 이론적 지식을 함양하여 현장실습을 경험하게 된다[13-14].

최근 COVID-19와 같은 보건환경변화를 시작으로 비대면 교육 매체의 고도화와 의학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사례 환자들을 작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에 따른 여러 가지 진단기법과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며 환자를 치료하는 다양한 기술을 학습하고 있다. 특히 임상 실습수업은 VR을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수업, 각종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 수업운영 등 최첨단 교육 매체를 활용하여 임상 실습수업을 대체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보건환경의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임상 실습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 인권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들을 방지하는 대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임상 실습기관의 절대적 부족으로 비대면 매체를 통한 임상 실습수업으로 대체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역량 있는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환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놓칠 수 있는 이차적 문제를 야기한다[15]. 다수의 학생들이 임상실습 1년차 시기에 경험한 비현실적 또는 부정적 감정은 남은 임상실습과 졸업 후 임상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임상실습 1년차의 실습적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 의료인으로서 충분한 탐색과 성찰을 기반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성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훈련이 필요하다[16-17].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과 의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1년차 경험을 가진 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 수준을 조사하여 임상실습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 1년차의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양질의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인권 인식 함양 개선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 1년차의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임상실습적응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임상실습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1년차의 의과 대학생과 간호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가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1)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임상실습 1년차의 의과 대학생과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본 연구를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동의한 임상실습 1년차의 의과 대학생, 간호 대학생이며, 휴학생과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편입생은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하여 [21] 유의수준(α) = .05, 효과크기 .15, 검정력($1-\beta$) = .80, 예측변수 12개로 표본 크기를 계산한 결과 127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5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응답자는 의과 대학생은 76명, 간호 대학생은 79명이었다(회수율 100%).

3. 연구도구

1) 인권감수성

인권 감수성이란 사회에서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관행, 제도 등을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성질 혹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9]. 인권감수성의 측정 도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2년 대학생 및 성인용 도구로 개발한 인권감수성 지표를 활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에피소드는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내용을 1문항씩을 포함하고 있다. 각 검사 문항은 인권 지표와 비인권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감수성 도구는 인권 문제나 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의 에피소드를 읽고 인권 옹호에 대한 능력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인권문항에 대한 점수가 비인권문항에 대한 점수보다 높은 경우에만 점수를 채택하고, 인권문항에 대한 점수가 비인권문항에 대한 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각 에피소드 별 지각척도의 검사 문항은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 감수성이 높음을 나타낸다[18].

본 연구는 임상실습 1년차 의과 대학생과 간호 대학생에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발 수정한 선행연구[6]에서 사용한 노인의 행복 추구권(가족회의), 성차별(감원대상), 사생활권(국가의료정보센터), 이주 노동자의 권리(려씨의 임금) 및 장애인의 신체 자유권(의사의 고민), 보건 정책참여권(진료자 명단)에 해당하는 6개 에피소드를 사용하였다[6].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7이었다.

2)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은 선행연구[6]에서 개발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는 유럽연합의 WHO(1995)의 환자권리보장선언, 녹색소비자 연대의 의료소비자 권리장전(2002), 의료생활협동조합의 환자권리장전, 환자권리선언문,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8)의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환자권리 내용을 확인하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환자 인권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도구를 개발하였다. 최종 확정된 문항은 총 24개 문항이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누릴 권리 및 평등권(4문항),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6문항), 비밀 및 사생활 보장권(4문항), 진료를 받을 권리(4문항), 손해배상청구권(2문항), 보건의정책참여권(4문항)의 총 6개의 하위 권리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환자권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중요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나타낸다[6].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8$ 이었다.

3) 임상실습적응

임상실습적응은 간호교육 목적의 이행으로서 지식이나 개념의 이해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인간 간호를 적용케 하여 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 면에 따른 행위의 변화로 간호대상자의 간호가 가능토록 돕는 것을 말한다[17]. 본 연구는 Park[2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 2)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임상실습적응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임상실습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를 활용하여 사후검증을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임상실습적응은 상관관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측정하였다.

- 5)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CSIRB-Y2022017)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인식, 임상실습적응의 변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인식, 임상실습적응의 변이를 검정하기 위해서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분석 결과는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인권감수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단, 학과 및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변이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간호학과와 교육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인권감수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권리인식의 차이분석 결과는 성격유형과 인권교육 경험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5$).

구체적으로는 성격유형은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 성격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인권교육 경험 유무에서는 교육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환자권리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임상실습적응의 변이를 검정한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전공 선택 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라고 응답한 집단이 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N=155)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62	40.0
	female	93	60.0
Age	20-25	91	59.5
	25-30	47	30.7
	more than 30	17	9.8
Department	Medicine	79	51.0
	Nursing	76	49.0
Religious status	no	110	71.0
	yes	45	29.0
Personality type	extroverted	28	18.1
	introverted	49	31.6
	mixed	78	50.3
Major Selection Motivation	according to aptitude or interest	59	38.1
	according to grades	21	13.5
	solicitation from family or teachers	22	14.2
	good job opportunities after graduate	35	22.6
	to serve others.	18	11.6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인식, 임상실습적응의 변이
Variations in human rights sensitivity, recognition of patient rights and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5)

Variables	Categories	Human right sensitivity		Perception level of patient rights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Mean(SD)	<i>p</i>	Mean(SD)	<i>p</i>	Mean(SD)	<i>p</i>
Gender	Male	3.53(0.42)	.05*	4.10(0.69)	.25	3.62(0.57)	.60
	Female	3.68(0.46)		4.23(0.75)		3.57(0.52)	
Age	20-25	3.65(0.49)	.40	4.20(0.74)	.65	3.60(0.52)	.14
	25-30	3.54(0.41)		4.13(0.66)		3.65(0.55)	
	More than 30	3.63(0.28)		4.32(0.7)		3.34(0.53)	
Department	Medicine	3.55(0.36)	.06	4.2(0.65)	.77	3.63(0.57)	.44
	Nursing	3.69(0.51)		4.16(0.8)		3.56(0.52)	
Religious Status	Yes	3.66(0.44)	.44	4.23(0.83)	.65	3.57(0.57)	.76
	No	3.60(0.45)		4.16(0.69)		3.60(0.53)	
Personality Type	Extroverted	3.46(0.43)	.11	3.85(0.76) ^a	.02*	3.73(0.73)	.28
	Introverted	3.67(0.41)		4.33(0.67) ^b		3.59(0.42)	
	Mixed	3.65(0.46)		4.20(0.72) ^{ab}		3.54(0.53)	
Major Selection Motivation	According to aptitude or interest	3.66(0.48)	.89	4.19(0.72)	.59	3.68(0.59)	.08
	According to grades	3.65(0.51)		4.08(0.67)		3.59(0.54)	
	Solicitation from family or teachers	3.59(0.38)		4.13(0.79)		3.48(0.39)	
	Good job opportunities after graduate	3.57(0.44)		4.13(0.81)		3.42(0.49)	
	To serve others.	3.59(0.38)		4.43(0.55)		3.77(0.55)	

장실습적응 수준이 높았고, ‘졸업 후 취직이 잘 되어서’라고 응답한 집단은 현장실습적응 수준이 가장 낮았다.

3.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4.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로 투입된 성별, 성격유형, 인권교육경험유무,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인식 중 외향적 성격, 환자권리인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검증되었다. 즉 성격유형이 외향적 성격일수록, 환자권리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적응도가 높았다.

회귀모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6.38, p<.001), 해당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임상실습적응을 24.2% 설명하였다.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인식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중 외향적 성격은 임상실습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선행연구[23]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상실습적응 요인을 대인관계 유능성, 학과적응, 대학적응의 매개변수로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적응은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인관계 유능성, 학과적응, 대학적응은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으나 임상실습적응에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나타나 기존 연구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외향적인 성격이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성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을 매개로 한 임상실습적응의 선행연구[17]와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성격유형 중 외향적 성격은 긍정적 성격의 의사소통역량이 유능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관계, 환자와 의료인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성향일수록 임상실습적응도가 높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결과적으로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많을수

<표 3>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Correlation of key variable in the mode

(N=155)

Variables	Human right sensitivity	Perception level of patient rights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Human right sensitivity	1		
Perception level of patient rights	.62*	1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32*	.45*	1

<표 4>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N=155)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46	.45		5.42	<.001
Gender(Male=1)	.09	.09	.08	.97	.33
Personality type(extroverted=1)	.34	.11	.24	3.14	.00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	-.04	.08	-.04	-.51	.61
Human right sensitivity	.11	.11	.09	0.95	.34
Perception level of patient rights	.34	.07	.46	4.70	<.001

F=6.39(p<.00), R²=0.29(Adj.R²=0.24)

록, 적극적인 임상실습태도를 보일수록 임상실습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말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경험을 통한 전문인재양성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치료와 간호를 수행하는 도덕적이고 질 높은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자 위주의 기존 주입식 수업보다는 다양한 교수법과 매체를 활용한 수업이나 학생 참여형 수업방식을 활성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과 외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적 인성교육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인간의 성격유형 변화와 개선은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의료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내향적 성격보다는 외향적 성격이 임상실습현장의 적응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환자권리 인식 수준이 임상실습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이는 환자에 대한 권리인식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적응이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4-6, 11, 19, 23]를 지지하였다. 사회가 변화할수록 환자의 다양한 계층 확대에 의하여 의료인은 더 많은 인권 현안에 대하여 다각적 접근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인식교육과 변화된 환경에서 요구되는 환자의 권리인식 수준 정도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정책적 대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과 대학생과 간호 대학생은 인간을 대상으로 치료와 간호를 수행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교육과정 편성 시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인식에 대한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인권 강화를 위한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인식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현장교육자들이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환자의 권리인식 수준 함양을 위해 자발적 관심과 올바른 인식하에 실습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개선과 환자권리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교과 외 활동 확대 및 활성화와 역할극 참여 등을 추천한다.

본 연구는 임상 1년차 학생들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임상실습에 참여해야 함을 검증하였으며 인식정도가 높을 때 임상실습적응도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개 종합대학의 편의표본추출에 의한 대상자

수집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추후 관련된 변수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현장수업에서 학생들이 실습과 동시에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환자권리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나리오-컨텐츠 개발이 선행되어 이를 적용한 교육과정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실습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ference

- [1] American Nurses Association(ANA). Nursing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Kansas City, MO: Author 1988.
- [2] Kim HS. The essence of nursing practice: Philosophy and perspective. Seoul: Jungdam Media Co 2016;1-303.
- [3] Liaschenko J. The moral geography of home car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94;17: 16-26.
- [4] Kim MS.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382-392.
- [5] Park HS. A study of convergence social voluntary service activity and sense of profession values, self-esteem, sociality in nursing students. [dissertation]. Cheonan: Dankook University; 2013.
- [6] Hwang JY, Cho HK.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4):455- 465.
- [7]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4.455>
- [8]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alks on human rights ;2011;10-55.
- [9] Song HM. A study on the patient`s right in medical ethics [master thesis]. Busan: Dong-A University;2000.
- [10]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 study of developing human rights-friendly uni-

- versity culture; 2009.
- [11] Ryu JH, Her CH. Factors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human right and their impacts on the attitude of human right.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 2008; 8(1):175–202.
- [12] Hong SW, Kim JS, Hyun HJ.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influencing facto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1;11(6):260–269.
- [13] Kim SN, Kim HJ, Choi SO. Effects of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ducation program including meaning in life on attitudes toward end-of-life care and meaning in lif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3):454–463.
- [14] Roh MS, Jeon HJ, Kim H, Cho HJ, Han SK, Hahm BJ, et al., Factors influencing treatment for depression among medical students: A nationwide sample in South Korea. *Medical Education* 2009;43(2):133–139.
- [15] DOI: <https://doi.org/10.1111/j.1365-2923.2008.03255.x>.
- [16] Min SK, Shin WC, Kim KI, Chung JI, Kim DK.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between medical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00;3: 1054–1060.
- [17] Kim HJ, Huh JS. The right of the clinical training for the medical students and privacy of the patients.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2013;21(2):107–123.
- [18] Park JH. N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3;15(6):3321–3332.
- [19] Je NJ, Park MR. Factors affecting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r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2021;7(8):261–270.
- [20] Developmen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Indicator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2.
- [21] Jun HS. Concept analysis of patient right.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9; 31(1):89–99.
- [22] DOI: <https://kjan.or.kr/DOIx.php?id=10.7475/kjan.2019.31.1.89>.
- [23] Jun MK, Kim MS.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1):40–48.
- [24] Oh DB, Yi YJ. Relationships among personal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kills, occupational stress, and patient safety activities of nursing workforce working in the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ward. *Korean Society of Hospital Management* 2022;27(3):15–25.
- [25] Park S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dissertation]. Cheonan: Dankook University;2017.
- [26] Je NJ, Hwa JS, Park MR. Factors affecting the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the first year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11):314–323.